

구원의 자격: 이긴자

승리제단은 이긴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교인들은 구원을 목적 삼고 교회, 절, 성당 등의 종교시설에 출석한다. 각 종교들은 그들 자신의 교리로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성불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표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자기자신과 불법을 의지처로 삼아 견성성불하라고 하고,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각자의 교리대로 믿음을 실천하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들 각 종교들은 오직 자신의 종교만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편 승리제단에서는 이긴자가 되어야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 승리제단의 그것이 동일한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승리제단을 일반 교회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승리제단의 예배행식이 찬송을 부르고 손뼉을 치며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는 기성교회의 형식과 똑같기 때문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 기성교회에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설교 내용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아류가 아닌가 더욱 혼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승리제단의 교리는 기독교와 완전 다르다. 첫째, 기독교인들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되어야 구원이다

지 않는다. 예수라는 존재는 가짜 구세주로서 진짜 구세주가 출현하기 전에 미리 와서 진리를 왜곡한 강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 둘째, 천국은 사후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며, 살아서 영생을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누구를 구세주로 믿는 '믿는 마음'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고, 오직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구세주가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실천하여 성령으로 거듭날 때(성불한다는 의미와 같다)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넷째,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만 하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진리는 인과법칙인데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 죄를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믿습다" 한마디로 구원의 결과가 생긴다면 그것은 인과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란 없다는 것이 승리제단의 교리이다.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승리제단에서 발행한 책들을 참고하면 좋겠다.

승리제단은 오히려 불교와 비슷하다

승리제단은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도의 종교라고 일컫는 불교와 같은 점이 많다. 그렇다고 불교와 완전 똑같지는 않다. 불교와 가장 다른 점은 구원의 주체가 되는 미륵불(구세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는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여 견성성불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한다.

반면 승리제단은 견성성불하려면 반드시 미륵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조금 상세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함으로 생성된 존재라는 것이다. 즉 마귀에게 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주체 영이었으나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주체 영이 사탄마귀로 교체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구원은 없으며, 이것은 죄인인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더 알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죽이려는 상대적인 신이라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마귀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마귀가 하나님을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대로 사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전멸시켜가고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들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를 죽이는 '갇코이슬'이라는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무기를 개발한 후 사람의 몸을 입고 출현하였는데, 그 존재가 바로 미륵불(구세주)이라는 것이다.

견성성불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를 없애버려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는 있지만 미륵불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불에 이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 불교와 완전히 다르다. 성불에 이르면 금강불괴의 몸, 즉 불사(不死)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므로 세간에서 말하는 깨달았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진실로 견성성불하여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구도자라면 반드시 승리제단에 입문하여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게 된다. 수많은 불자(佛子)들이 견성성불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입산수도로 견성성불 못해

성철스님이 말한 오매일여(寤寐一如)에 들어도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오매일여에 들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미륵불을 만나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격암유록은 계몽가에서 "山不近에 轉白死니 入山修道下山時라, 즉 산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입산하면 죽으니(轉白 즉 자라를 굴리면 입산(入山)이 된다) 입산 수도하는 사람들 산을 내려올 때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말발시대이다. 소위 수행승이라고 하는 자들 중 일부가 이성(異性)을 가까이하고 술과 노름에 빠져 있다고 한다. 승보사찰의 주지라는 스님이 성추문으로 직무정지가 되어 불자들이 개탄을 자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눈 푸른 구도자들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 단지 승복을 걸치고 월급을 받는 직업 승려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미륵불이 계시는 승리제단에서는 치열한 구도자들이 있다. 진실로 견성성불을 원한다면 이곳으로 와야만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
"현재의 인체구조로는 영생할 수 없다"

성령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전에는 이 우주는 온통 빛의 세계였다. 이 우주만 빛이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도 빛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사망의 신 마귀에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인간들의 모습인 남자, 여자의 몸으로 화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음과 양으로 변화

되어 마귀의 성품을 따라 괴로움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체구조를 가지고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마귀를 전멸시켜야 죽음이 없어지고 영원무궁토록 빛으로써 빛나는 존재가 되어 기쁨과 희열 속에서 영광을 누리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기는 삶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화중구출(禍從口出)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구화지문(口禍之門)과 같은 말이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폭력은? 바로 말이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맹렬한 불같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같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기의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내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치우해 줘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하였다. 각자의 행위대로 하늘이 보응(報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욕을 먹었다고, 모욕당했다고 화내지 마라. 그가 한 욕은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간다.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면서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라. 그런 사람에게 괜히 말을 꺼냈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는다.

말이 많으면 좋은 운이 도망가는 법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소리는 하지 마라. 말대로 된다.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말만 하라.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쳐 주면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기분 좋게 유지하도록 두라. 상대방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바로 잡지 않아도 옳고 그름은 저절로 판명된다. 굳이 내가 정의 구

현하려고 하지 마라. 괜히 서로의 관계만 나빠진다.

사람들은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고집하며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고 오직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뿐이다. 상대방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기어이 자신의 말이 옳고 상대방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한다. 말로 이기는 것은 공허한 남을 뿐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생각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토론이 된다면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윈윈의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 무엇일까? 핵무기? 환경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인간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말의 폭력이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어 버린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족하다.

모두가 따뜻하고 정다운 말로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 바란다. 귀를 더럽히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입을 더럽히는 것 또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한 번 마음이 더러워진 뒤에 얼룩지고 때가 끼어도 잘 알 수 없다. 더러워지기 전에 조심(操心)하고 경계(警戒)해야 한다.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말을 해서 후회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흔한 일상이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말이다. 정말 말조심하자.*

챗GPT 이용하여 진도방안 강구하자

최근 개발된 챗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 최강의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코드 레드' 경보를 발령하여 비상 대책 수립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최고의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도 그것에 대응할 서치GPT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챗GPT의 효용성에 연일 세계적인 감탄이 나오고 있다.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미국의 의사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챗GPT에 영생이 가능한지라고 물었더니 일부 종교에서는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육체적 영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과학적으로 육체적 영생은 아직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답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것을 학습한 후 답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그가 영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 승사는 "영생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월등히 많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륵불을 바라보는 것이 견성성불하는 유일한 법

도 닦는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구도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참선을 한다든가, 염불을 한다든가, 보살행을 한다든가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위하여 지금도 많은 불자(佛子)와 스님들이 맹렬히 정진(精進) 중일 것이다.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 화두

우리나라 불교는 대개 간화선(看話禪)을 위주로 한다. 간화선은 화두(話頭)를 본다(看)는 뜻으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을 말한다. 화두(話頭)의 글자 뜻은 이야기의 말 머리라는 것이지만 간화선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인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과제를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화두라고 한다. 화두의 예를 들면 조주(趙州) 스님에게 어떤 제자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조주는 '없다(無)고 답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자 화두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는가 하면서 깨질 때까지 의문을 갖는 것이 바로 화두이다. 참선할 때에 화두를 생각하는 것을 화두를 참구(參究)한다 또는 화두를 들었다고도 표현한

다. 그런데 화두를 참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두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그 답을 찾는 일반적인 사유(思惟)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잘못이다. 즉 화두에는 정답이 없으며 그 화두를 끝까지 생각하는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의 의심 덩어리만 있을 뿐이다. 화두를 계속 참구해 나가다보면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즉 자신의 모든 행위 자체가 화두가 함께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성철스님이 말한 깨달은 3단계

성철스님은 화두수행을 접경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동정일여(動靜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 동정일여는 얘기하거나 밥 먹을 때와 같이 움직이거나 고요하게 있거나 동정(動靜)의 상태에서도 화두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경지이며, 몽중일여는 꿈속에서도 화두가 숙면일여는 숙면에서도 화두가 생생하게 있는 경지를 말한다. 성철스님은 이처럼 깨어있거나 잠자거나 간에 오매일여

(寤寐一如)가 되어야 깨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승리제단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미륵불을 일심(一心)으로 바라보고 고도(高度)로 사모(思慕)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법으로서 부처를 바라보면 부처의 영이 들어와 자신의 예고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수행법이다. 불교에서도 불상을 바라보는 진신관(眞身觀)이라는 수행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진신관은 불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완전하게 도통을 한 미륵불이 아니므로 미륵불이 나와서 정도(正道)를 설하기 전까지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미륵불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까지도 이긴 승리한 부처가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나오면 우담화(優曇華)라는 뜻이 바로 승리한 부처를 상징하는 꽃이다. 즉 우(優)는 이길 우자이며, 담(曇)은 부처를 답자이며, 화는 꽃 화자인 것이다.

따라서 미륵불을 관(觀)하게 되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미륵불의 영이 들어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견성성불할 수 있